

延邊地域 朝鮮族說話의 性格

蘇 在 英*

目 次

- I. 머리말
- II. 白頭山說話
- III. 渤海國說話
- IV. 說話의 獨創性和 模倣性
- V. 마무리

I. 머리말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설화가 어떤 특수성을 지녔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다. 지금까지 채록된 설화들만도 적지 않은 편인데 이들은 20여작품집으로 이미 출간되어 있다. 이들을 대충 검토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로 대부분의 설화들은 구술자와 관련하여 살펴 볼 때 한반도에 전승되는 작품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 많다. 이들 작품들은 조선족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유산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연구권 밖에 속한다.

둘째로는 이곳의 작품들이 옮겨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하거나 변이현상을 보인 작품들이다. 청(淸)대나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보인 변화들인데 저항적 성격은 강하나 작품의 미학적 가치가 적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분석하면 조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선족의 사회사 내지 정치경제사적 성장요인과 의식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로 조선족의 이주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작되어진 작품들을 들 수 있는데, 이같은 설화의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개척적 정신사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화가 지닌 본질적 미학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민족의 발원지인 백두산을 중심한 설화작품을 통하여 그 특색을 살펴본 후, 민족적 혈연과 역사의식이 담겨진 발해·고구려 설화를 통하여 그 성격을 검토하고, 그밖에 대표적 설화 작품들을 통하여 독창성과 모방성을 검증하여 보려고 한다.

II. 白頭山說話

연변지역의 조선족 설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숫적으로 많은 것이 白頭山說話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설화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고래로 여진 청나라를 이어 오면서 민족의 성산으로 신성시하였으므로 유사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후대에는 조선족설화와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천녀욕궁처>는 그 대표적 작품의 하나이다. 천상 옥제의 딸인 부구륜(佛古倫)이 지상에 내려와 목욕을 하다가 까치가 옷가에 떨어뜨린 붉은 알을 삼키고 옥동자를 분만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아이신조뤄(愛新覺羅) 부구리용순(布庫里雍順)이라 하였으며, 이가 나중 추장들의 추대를 받아 여진족의 시조가 된다. <천녀욕궁처>는 유전봉이란 사람이 부르후리에 세운 비석의 명칭에서 유래된 말이다. 吉林省民間文學集成의 <天女浴躬處>에서 보면 어미 부구륜은 나중 장백산으로 들어가 옷이 없어 상천하지 못하고 밀림 속에 살며 아들의 성장을 보다가 한 그루의 아름다운 장송으로 변하였는데 이가 바로 오늘날 장백산의 '美人松'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이 滿洲故事集에는 '天鷲仙女' '三仙女' '布庫里雍順' '天女諾浴躬池' 등 여러 형태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 천상적인 부계 혈통에 중점을 둔 우리의 東明王신화의 골격에다 '나뭇꾼과 선녀' 즉 白鳥天女型 설화의 패턴을 가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설화가 전승되는 天池說話를 살펴보기로 하자.

〈천지〉는 ‘天池’의 생성과 천지를 둘러싼 16봉의 연기를 말하는 대표적 작품이다. 흑룡이 출현하여 불칼로 물끓을 지저 물줄기가 말라 가뭄이 계속되자 공주의 지시를 받은 백장수가 백두산 옥장천을 찾아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삼으로 열여섯 삼을 파 내던진 것이 오늘날의 16봉이 되고, 흙을 파낸 자국에 고인물이 천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흑룡과 백장수의 대결과정에서 공주가 가세해 줌으로써 백장수가 승리하여 나중 공주와 결혼하게 되며, 싸우는 사이에 흙을 파낸 구덩이에 물이 고여 넘치게 되는데, 백장수부부는 흑룡의 횡포를 영원히 막기 위하여 천지 속에 수정궁을 지어 놓고 단란한 생활을 하며 천지를 수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흑룡과 백장수의 대결은 악과 선의 대결,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 할 수 있으며, 황무지를 개척해온 조선족의 투쟁적 모습이라고 하겠다. 백장군의 승리는 공주의 적극적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결혼하여 천지에 수정궁을 짓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은 천지로 상징되는 민족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천지수〉(민간문학자료집)에는 공주가 봉왕의 딸이며, 백장군이 흑룡의 불칼에 찢려 피흘리는 광경을 본 공주가 흘린 눈물이 천수가 되었다고 하고, 흑룡이 불칼로 천지수를 찍다가 백장군의 칼에 핏겨 나면서 바위 벼랑을 갈라 그곳에 물끓이 나게 되어, 이로부터 천지수가 북쪽으로 흘러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백장군에 패한 흑룡이 설욕을 하기 위해 심술을 부리면 백두산의 기상이 수시로 험난하게 변화한다고 한다. 〈천수〉(백일홍)에서는 동해의 맑은 물의 근원이 백두산 천수임을 알아낸 옥황과 용왕의 제자들이 천상과 용궁에서 찾아와, 천수를 이고 솟은 백두산의 풍경에 경탄하게 된다. 이 때 선녀들이 천지의 물을 떠서 마시고 병풍바위에 던지니 땅속으로 흘러들어 동해에 들었는데, 땅속으로 도망쳐 흘렀다고 하여 도망강(도문강)이라 하였다. 또 한바가지를 떠 북으로 던진 물이 달문을 지나 솔밭을 굽이돌며 솔꽃분을 물에 띄워 동해로 들어가서 이를 솔꽃강(송화강)이라 하였다. 그리고 서쪽 마협곡에서 세번째 던진 물이 산이 가로막혀 앞쪽으로 누비며 서쪽으로 흘러 들었는데 이를 앞누비강(압록강)이라 하였다. 도문강은 도망치듯 흐르고 송화강은 솔꽃덮혀 흐르며, 압록강은 앞쪽으로 누비며 흘렀다는 삼강의 시원담은 그 연원을 각각 천수에 두고 있다. 〈용을 동여맨 돌기둥〉에서 보면 천상에서 악행을 일삼던 흑룡이 지상으로 내려와서도 여전히 악행을 하다가 옥황이 보낸 지상총감에게 벌을 받는 내

용으로 되어 있다. 흑룡이 농락할 처녀 셋을 골라 용문봉 18층 동굴에 가두어 두었다가 지상총감에게 발각되어 악행이 드러나자 흑룡은 화개봉 돌기둥에 매달아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 이 돌기둥이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과 같다고 하여 ‘천지일주’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지금도 얼룩진 용껍질이 화개봉 돌기둥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천지를 기운 돌바늘>은 창세의 홍수신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백두산이 대홍수로 물에 잠긴 후 유복자 모녀만이 살아 남는데, 여와씨는 이곳에 증손녀를 내려 보내어 그들을 구하고 백두산 바위를 뽑아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바위돌을 실로 꿰어 모아 넘치는 물을 막는다. 그후 그 여인은 여와씨의 명으로 유복자와 부부가 되어 인류를 번식하게 되며, 그때 기운 바윗돌들이 천지를 에워싼 16봉우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6봉의 연기 전승들은 보은·효도·복수·애정 등 도덕적 의미 부여가 된 작품들이 많다. <관일봉>은 수달로 화한 용왕의 딸을 구해 준 보은으로, 세번 해가 솟으면 적군을 추격 격퇴하라는 여인의 말을 따라 외적을 물리치고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보은거북의 일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관일봉>은 바로 광장군이 해돋이를 바라보던 산봉우리라는 말에서 연유되고 있다. <백운봉>은 <흑떼러 갔다 흑불인 영감형>설화와 같은 유형이다. 효자가 노모의 병을 구완하기 위해 갖은 신고를 무릅쓰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 영약을 캐어 효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한 탐욕스런 부자가 자신의 장수(長壽)를 위해 백두산을 찾아 나섰다가 흰구름이 덮여 있어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하여, 효자와 욕심많은 부자의 이기심을 ‘백운’을 매개로 대응시켜 주고 있다. <와호봉>은 새끼범을 데려다 길러 준 은덕으로 사랑하던 더꺼머리총각과의 사랑을 이루게 된 동물 보은의 설화이다. 가난한 부부의 가정과 행복을 지켜주던 호랑이가 죽어 돌이 되어 ‘臥虎峯’이 되었다고 하였다. <금강봉>은 같은 명산인 백두산과 금강산의 친연성에서 명칭이 연유하고 있다. 금강산 포수가 백두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동료포수에게 피살되자 그 아들(복철이)이 추적 끝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 봉우리가 고향인 금강산을 닮았다고 하여 금강봉이라 명명하게 된다. <인삼굴>은 가난한 염복과 부자로 심술사나운 만필과의 대조를 통해, 가난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의 진실된 모습을 제시해 보여주고 있다. 염복을 굴속에 남겨두고 인삼을 가지고 달아난 만필이 구렁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착한 염복이 신령의 도움을 받아 인삼을 많이 캐어 모친의 병을 구하고 부자가 되는 효선의 삶을 대조시켜, 당시 개척 이주민들의 삶의 도덕적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III. 渤海國說話

중국 조선족에 있어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양국의 친연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발해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김육불의 ‘渤海國志長編’에 망라되어 있고 東京城이 발굴되고 돈화의 貞惠公主·화룡의 貞孝公主 묘비 등의 발굴로 역사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經國集에 수록된 楊泰師의 〈夜聽 擣衣聲〉 등 10여편의 시가 남아 있어 설화자료와 더불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왕비석〉 〈조선족전설집〉은 고구려의 전국신화에서 비롯된 광개토대왕의 건비과정을 설화화하고 있다. 부여국의 추상왕이 길몽을 얻은 후 압록강에 나갔다가 하백의 딸을 얻어 아내를 삼는데, 잉태한 14개월만에 태를 낳는다. 이를 불길하다 하여 내어다 버리니 짐승들이 보호해주므로 다시 궁궐로 모셔와 태를 가르고 옥동자를 얻으니 이가 추상왕을 계승한 추년왕으로, 낳은 어머니를 기념하여 부여의 서울을 샘골(후의 집안)로 옮겼으며 그 20대손 호태왕이 개국선왕을 기념하여 그곳에 비석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 설화는 해모수가 하백의 딸 유화를 아내로 삼고 주몽을 탄생시키는 난생설화의 한 변형으로, 광개토대왕비에 이같은 신이한 개국 사적이 기술되어 있다. 〈상경룡천부〉는 발해의 文王大欽茂(3대)가 동원부를 파하고 용천부에 도읍하게 된 풍수설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목단강변에 살던 김씨성의 풍수가 축대 우거진 벌판에 명당을 발견하고 유언을 통해 자신이 그 자리에 묻히게 된다. 그후 아들 내외는 명당의 은덕으로 옥동자를 얻게 되나, 이를 시기한 당나라 감천사의 추적을 받아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만다. 이를 슬퍼한 어머니가 구렁이로 변한 아들의 시체를 아버지의 무덤에 함께 묻어주었더니 백일 만에 홀연 무덤이 갈라지면서 아들이 진룡으로 변신하여 승천하게 된다. 이 소식에 접한 문왕이 그 무덤을 찾아보니 과연 명당인지라 곧 그 자리에 용천부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발해의 도읍과 관련된 풍수설화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경릉 천부'라는 작품인데 김풍수와 당나라 감천사와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발해의 민족 의식이 앞서고 있다는 우월적 역사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경박호1>은 발해 유민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경박호의 어부생활과 결부되어 있다. 딸 하나(유아)를 남겨 놓고 어부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경박호 늪속에 잠긴 발해거울을 건지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유언한다. 이 거울은 발해국 보배로, 거란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자 마지막 왕인 애왕이 거울을 가지고 나와 자결하면서 늪 속에 빠뜨린 것이다. 애왕의 원혼이 거울을 움직여 풍랑을 일으켜 어부들을 죽게 하므로 어부는 이 거울을 함께 건진 용감한 한 청년을 선택하여 딸 유아와 결혼을 허락한다.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 고난 끝에 거울을 건지는데 성공했으나 갑작스런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어부와 사위도 죽고 이에 놀란 유아도 자결하여 비극적 종말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후로는 어부가 원귀들을 모두 죽인 탓으로 풍랑이 일지 않아 어부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경박호'란 망한 발해국의 원한을 지닌 거울이 잠긴 호수라는 의미인데, 발해 유민들의 한을 담은 비극적 작품으로 전승되고 있다. <경박호2>는 앞 작품과는 달리 행복으로 끝나는 결말을 지니고 있다. 물속에 잠긴 거울의 기이한 섬광이 물밖으로 내비치면서 어선들을 미로에 끌어다 암초에 부딪쳐 파선케 하므로 어부들이 해마다 수신제를 지내게 된다. 사위감으로 피택된 소년은 장인과 함께 사력을 다하여 구리거울을 건져내고 결혼하는데 성공한다. 일가족의 행복은 물론, 경박호의 어부들도 그들 용서의 덕분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경박호와 모란강>은 선악의 대결구도가 더욱 분명한데, 이는 아마도 발해국의 패망과 그 유민들의 지배층에 대한 감정이 더욱 첨예화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어부의 딸이 소년장군 대안석을 사랑하여 금거울을 선물로 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을 시기한 왕후가 군사를 파견하여 소년장군과 결전을 벌이는데, 대안석은 결국 적의 독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고 소년도 금거울을 품은채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만다. 이튿날 날이 밝자 홀연 호수에는 웅덩이가 패이고 샘이 솟아나며 모란꽃이 가득 피어나게 된다. 이후로 사람들은 푸른늪에 금거울이 잠겼다 하여 경박호라 부르고, 소녀의 죽은 혼이 모란꽃으로 변하였다 하여 그 강을 모란강이라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경박호에 얽힌 세 작품

에서 보면 발해 유민들의 한과 비극적 삶의 모습의 변모과정을 오랜 세월 뒤에 그 땅에 이주한 조선족설화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원한늪과 용바위〉는 성녀와 성남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로, 발해성 쌓기의 부역공사에 결부되어 있다. 성남이 성쌓기 부역에 나가 소식이 없자 성녀는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성녀의 소식에 접한 성남이 부역 중 실족하여 죽자 성녀의 통곡이 성벽을 허물어 늪을 만들게 되며 그곳에 무덤이 솟아 오르게 된다. 이 소식에 접한 왕이 성남의 제사를 지내자 성녀는 구렁이로 변하여 젓상을 뒤엎고 남편의 무덤을 지킨다. 성녀가 구렁이가 되어 무덤을 지킨다 하여 그 바위를 ‘용바위’, 성남이 죄 없이 시달리다 죽었다 하여 그 늪을 ‘원한늪’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이 작품은 남편을 찾아갔다가 그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성벽에 쓰러져 우니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며 남편의 유골이 나타났다고 하는 ‘孟姜女傳説’의 변형으로, ‘발해성쌓기설화’와 결부되어 있다. 〈발해왕발터와 뽕나무밭〉은 가난한 어부의 딸이 효성이 극진하여 발해왕비로 피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몸에 마대를 두르고 손에는 두부한 모를 든’ 여인이 ‘손에 백옥을 들고 몸에 황금치마를 두른’ 규수로 둔갑하는 과정을 통하여, 효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부원군이 된 어부에게 예전처럼 고기잡이를 하도록 발터를 만들어주고 왕비의 신분으로 그대로 누에를 치도록 뽕나무를 심어 주었다는 소박한 서민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오녀산의 전설〉은 고구려설화로 전승된다. 오룡산에서 적을 맞은 오남매가 위급한 지경을 당하였을 때 절벽에 짙게 낀 안개가 그들을 구원해 주고, 오룡산 봉화대의 연기가 부산에서 솟아오름으로써 오빠의 구원을 얻어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다. ‘五女山’과 ‘烟筒山’의 지명연기설화인 ‘오녀산의 전설’은 자연의 기적으로 위기를 구출하는 사실을 통해, 고려국의 융성을 바라는 민중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룡문〉은 용남·용녀 오누이가 거란의 침략군에 항거하다 경박호에 투신하여 화한 쌍바위의 일컬음이다. 여기서 보면 용남이 피살되자 누이인 용녀가 대신 전장에 나가 거란군을 몽골지역으로 추방하고 자신도 용남의 시체를 안고 경박호에 투신하여 국난을 막았다고 하였다. 발해인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그들의 기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도 송풍(총각)과 라월(처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미인송림담 등 주목할만한 20여편의 발해국 설화들을 들 수 있다.

IV. 說話의 獨創性和 模倣性

‘연변지역의 설화’로 한정해 놓고 살펴볼 때 그 작품이 얼마만큼 독창성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얼마만큼 문학성이 있느냐에서 가치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연변지역 설화집들을 보면 고령의 구연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거의 일제시대에 연변에 이주한 분들이므로 자연 구술내용은 젊은 시절에 한반도에서 채록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들도 이주하여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변형되고 지역적 영향(중국)을 받아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보다는 이주한 신천지에서 고난을 무릅쓰며 개척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새로 창작되어진 작품들이 더욱 고귀하고 값지다고 하겠다.

식물(꽃)설화 가운데 진달래·백일홍·봉선화·민들레·박꽃의 유래를 기술한 작품들에는 매우 독특한 신선미와 참신성이 있다. <진달래>(연변의 견우직녀)는 오누이가 백성들편에 서서 관군과 맞서 투쟁하다가 죽어 얼룩진 핏자국에서 피어난 꽃이라 하여, 강자와 약자의 대결구도에 개척적 순결성을 상징화하고 있다. <백일홍>(백일홍)은 고기잡이총각을 기다리다 죽은 처녀의 영혼이 변화되어 피어난 꽃으로, 한에 사무쳐 해마다 장독가에서 백일을 피어났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주민들의 순결한 사랑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봉선화>(백일홍)는 전승설화 <뱀신랑>의 변이담으로 가난한 소녀 ‘봉선화’가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된 서선비(구렁이)를 위해 끝까지 자기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설화하고 있다. 봉선화소녀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피땀 흘려가며 일구어낸 개척이민들의 정신사라 하겠다. <민들레>(삼태성)는 의병으로 싸움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죽은 자취에서 피어난 꽃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상징화하고 있다. <박꽃>(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은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폭군에게 동침을 강요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귀양보낸 남편의 돌아움을 기다리던 아내의 주검에서 피어난 꽃으로, 어둠 속에 하얗게 피어남은 그녀의 순결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다. 이 역시 도미설화의 한 변형이라 하겠다. 지명연기담인 <해란강>(인삼처녀)은 해(海)와 란(蘭) 한쌍의 남녀가 협동으로 악마와 싸워 그를 살해하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고 그들은 함께 결혼하여 악마가 방해하지 않은 땅에서 행복을 누리한다는 이야기다. <용천골>(천지의 맑은 물)은 용정우물의 연기설

화로, 용정골을 개척해 들어온 한 초동과 하늘에서 우물가에 내려온 선녀와의 사랑이 담긴 내용으로 되어 있다.

〈팔선녀〉(차병걸옛이야기집)와 같은 작품은 효사상을 강조한 대표적인 것이다. 노모의 병 구완을 위해 백두산 천지로 장수버섯을 구하러 나간 더벅머리 총각은 구렁이를 만나 고난을 당하나 하늘에서 내려온 팔선녀의 도움으로 구렁이를 격퇴하고 막내 선녀와 결혼하여 삼태자를 낳게 된다. 이로부터 조선족이 번성하게 되었으며, 구렁이와 싸우던 일곱 선녀는 북두칠성이 되어 하늘을 지키면서 막내동생을 못잊어 밤마다 깜박인다고 하였다.

〈갈지 않은 두 사람〉(삼태성)은 가난한 원필과 부자인 은필이 백두산에서 인삼 캐는 것을 매개로 하여, 가난과 선·부와 악으로 도식화되는 대립구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조선족들의 소망을 제시해 보여주고 있다. 원필은 은필의 흥제로 고난에 이르지만, 산신과 꽃사슴에 구원된 원필은 끝내 행복을 쟁취하게 된다.

〈비련지〉(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는 나무꾼과 선녀의 한 변형인데 비극적 승화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천상 옥황제의 셋째딸이 지상의 늑가에 산책을 나왔다가 쌍피소리에 매료되어 목동과 부부의 연을 맺고 천상의 소환을 받았으나 그녀는 지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에 격노한 옥황상제는 공주로 하여금 잉어로 변신시켜 늑속에 버렸으므로 다시는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悲戀池’의 생성설화는 창작적 비극미가 우세한 대표적 작품이다. 〈삼태성〉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삼형제별의 내력을 말하는 설화이다. 두 마리의 흑룡이 태양을 삼켜 버리자 유복자 삼형제는 천상에 올라가 흑룡을 시살하고 이후로 천체의 이변을 막기 위해 하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고 한다. 흑룡은 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격퇴하는 영웅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민중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밖에 〈사랑산〉 〈천도복숭아〉 〈파경노〉 〈효부종〉 등 많은 작품들을 예거할 수 있으나, 대개가 우리쪽 설화작품의 모작이거나 변형들이 많다.

V. 마무리

지금까지 연변지역 조선족설화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백두산설화에서 보면 천상적인 신이성이 작용하거나 흑룡과의 대결을 통하여 승리는 자가 정복자로서의 삶을 생취하게 된다는 대결구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신화적인 신비성을 작품마다 간직하고 있고, 16봉전승들은 보은·효도·애정·복수 등 일상적 엄격한 윤리의식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발해국설화에서 보면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국에 대한 혈연적 향수와 애정을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의 전국신화에서 비롯하여 명당전설 등이 모두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향수들이다. 경박호의 비극적 ‘거울찾기’에서 조선족에 이어지는 친연성의 현상이 목도된다. ‘발해성 쌓기’를 통한 부부간의 사랑·오누이의 용감성과 의리를 간직한 <용문전설> 등은 개척 이주민의 정신적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준다.

식물설화에선 창의적 작품이 많은데, 관군과 투쟁하다 죽은 오누이의 열이 배어난 진달래, 죽음과 맞바꾼 사랑의 순결성을 드러낸 백일홍, 가난한 소녀의 사랑과 투쟁을 그린 봉선화, 가난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박꽃설화 등은 모두 억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지키려는 강한 도덕률의 결실들이다. 또한 <해란강>이나 <용천골>은 개척적 창작설화의 일품들이다. 효사상을 강조한 <팔선녀>, 원필과 은필의 ‘인삼캐기’는 도덕적 규범의 제시물이며, 초동과 선녀의 비련을 그린 <비련지>, 흑룡을 격퇴한 <삼태성>의 용감성 등은 조선족 민중들의 한과 소망의 표현물들이다.

가린의 ‘백두산민담’에는 용의 말을 빌어 지배계층에 의한 수탈과 피지배계층의 고난상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설화하고 있는 대문이 관심을 끈다. 설화에서 보는 가정들은 가난하거나 병든 부모를 모신 결손가정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소박한 희망과 꿈의 실현이 소망이다. 이런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진실된 삶이 필요하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 투쟁과 대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망이 환상의 무지개로 피어나면서 연변지역 설화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참 고 문 헌

- 백두산설화연구, 정재호 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2.
- 연변지역조선족문학연구, 소재영 외, 송실대출판부, 1992.
- 중국조선족문학사, 조성일·권철, 연변인민출판사, 1990.
- 조선족문학연구, 임범송·권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구비문학편 상·하), 북경대조선문화연구소, 1993.
- 항일전설설화집, 김태갑·박창묵, 연변인민출판사, 1992.
- 조선족전설집, 김태갑, 민족출판사, 1991.
- 조선민간전설, 리진록·최룡관
- 백두산 전설, 조정현·최웅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 팔선녀, 림승환·한광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 블로초(상·하), 리용득, 료녕인민출판사, 1984.
- 민간문학자료집(3·4), 박창묵·김태갑, 민간문예연구회연변분회, 1982~4.
- 삼태성, 김명한, 연변인민출판사, 1983.
- 연변의 견우직녀, 연변민간문학연구회, 1982.
- 백일홍, 길운, 연변인민출판사, 1979.
- 천지의 맑은 물, 길림민간이야기, 연변인민출판사, 1962.
- 인삼처녀, 길운, 연변인민출판사, 1962.

여 백